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보수의 몰락과 호남 정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과거의 질서에 머문 결과

보수의 몰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낡은 사고방식에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의 역동성을 간과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따뜻한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의 질서에 머물렀다.

특히, 남북 정상 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대한 보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위장 평화 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오히려 강한 역풍을 불렀다. 사회 전반의 평화와 공존의 흐름을 외면하며 구시대적인 냉전과 성장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선거 기간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으니 보수 진영의 참패와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민심의 쓰나미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것은 물론 소속의 원들은 국회 로터디 홀에서 무릎을 꿇은 채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당 해체론과

함께 제 3지대에서의 보수 재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혁신의 대상과 주체를 놓고 내용이 불거지고 있어 쓴웃음만 나오는 형국이다.

특히, 이번 지방 선거는 사회적 변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심은 냉전적 이념 구도에서 벗어나 실리와 공생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남 지역주의와 과거 기득권에 뿌리를 둔 보수 리더십의 퇴장과 함께 이념적 지향 변화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적 좌표 설정과 인식 청산의 화두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수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변혁은 이제 보수의 생존 조건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의 몰락은 호남 정치 현실에 비추어 봐도 시사점이 크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부재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민심의 지지로 출범한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승리로 창출한 '제3의 길'을 결국 지켜 내지 못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 지방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호남 중진들의 반목과 정치력 부재, 초·재선의 원들의 무기력은 보수 진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문풍(문재

인 바람)에 기대어 토론화마저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천은 당선'이라며 최소한의 비전 제시도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광역·기초 의원을 거의 싹쓸이 하면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바람에 따른 '묻지 마 지지'로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유력 주자에 줄을 서는 구태도 재현되고 있다.

세대교체·창조적 해체 필요

이 같은 현실은 '민중·진보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의 종속화 등 퇴행을 가속시키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호남 정치권은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창조적 해체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과 정파를 넘어 시대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고난의 행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권 불임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호남 민심의 지속적인 고령화 감시와 호남 정치권의 분방이 요구되고 있다.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하나로유통 팀장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려면

농가 수는 30%가 줄어든 것인데, 탈농 현상의 가속화와 전업 등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도 4.7%로 0.2% 줄었다.

가구 수가 감소한 반면 고령화는 더욱 진전되어,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는 42.5%로 1년 전에 비해 40.3%에서 2.2% 늘었다. 국내 전체 고령 인구 비율(13.8%)도 늘고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체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55.3%)이었다. 70세 이상은 3.2%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로는 모두 줄었다. 이대로라면 농가 인구가 200만 이하로 주저앉을 날이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친 김에 전국 가구 분포도 한번 살펴보자. 총 1984만 가구 중 수도권은 965만 가구(48.6%), 비수도권은 1019만 가구(51.4%)로 반반에 가깝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900만 가구(45.4%)가 사는 반면, 또 지역에는 1083만(51.4%)에 불과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39세의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나눈 인구 소멸 지수는 1.0 이하가 인구 쇠퇴의 시작을, 0.5 미만은 소멸 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전남은 0.5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22개 시군 중 78%인 17개소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줄고 폐가와 폐교가 늘어나며 마트와 학원, 미장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책 지원 사업'이 추가 선별을 해야 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전국 1년차 농업인이 전체 지원자의 73.3%에 달해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영농 기반이 있는 부모를 가진

신청자가 67%에 달해 부모의 후광만 얻고 영농 의사는 별반 없는 사람이 지원한 다거나, 지원 자금 유용 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성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출산과 육아, 교육, 문화, 의료 등의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농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영농 활동에 쉽게 적응하고 기성 농업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2만~3만 원씩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개인 모임이든,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구성원을 가진 농촌이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강물이 한 줄기 되어 유유히 흘러가듯 나아가는 소원의 시구처럼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기고



양훈
목사·시인

맹기를 아시나요

앞으로 차고 오를 때면 뒤로 쪽 내려진 머리에 달린 맹기가 훤히 날았다. 밑에서 구경하던 자희들은 누가 먼저 시작할 것도 없이 부르던 노래가 '오빠 생각'이다. '말을 타고 서울 간 오빠가 비단맹기 사가지고 오신다더니'의 비단 맹기가 시대가 변하면서 '비단 구두'로 바뀌긴 했지만...

80여 년 전 여자 아이들은 거의 머리를 땅고 그 끝에 끈이나 형겼을 드리는 맹기를 하고 다녔다. 가끔 아이들에게 맹기를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고 한다. 지금은 맹기라는 이름도 모르는 세대가 됐지만 우리들 어려서 큰 관심거리였다. 그때는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여자는 머리를 땅고 다니지 못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애엔 애둥하는 뜻에서 머리를 풀어보는 것이지 여자 아이들은 돌도 되기 전부터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면 앞머리를 반듯반듯 빗아서 굵은 실이나 형겼으로 드리워 마무리 지어 놓는 게 어머니들의 손재주였다.

조금 더 자라면 그 총총 머리를 합쳐서 뒷머리와 함께 땅고 맹기를 드리워 마무리 지어 놓는다. 할머니가 계신 집에선 할머니께서 도와주시니까 좀 쉬워도 그렇지 않은 집에선 날마다 아침에 머리 빗겨주는 것이 큰일이였다. 저희 집 경우에는 제 여동생이 셋에 그 때만해도 대가족 제도라 작을때도 함께 살았다. 자기 마치 식구가 열다섯, 작은 사촌 여동생이 다섯이었으니 아침마다 학교를 보내시려는 어머니, 숙모님 고생이 어렸을까. 이제야 조금 가능해 보니 우리가 잠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믿기지 않는다. 맹기로 자기의 형편을 과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흰 맹기를 드리우고, 삼년이나 지나야 검은 복 맹기 석 달을 드리우고 석 달이 지나면 붉은 맹기를 드리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설날 비단 맹기 하나 드리우면 추석이나 되어야 또 하나 드리우는 건데 요즘을 날마다 만지고 매고 하니 몇 달 이간거리 해어지는 것도 보았다.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명주와 산동주에 물감을 들여 드리웠는데 웬만한 집 아이들은 너털너털해진 걸 드리우고 다니었으니 그 시절 맹기는 참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설날 어머니께서 드리워 주시는 내 동생들 호사 맹기는 오복수 좋은 맹기였다. 길이로 반 되는 곳을 정점으로 두 자락 안으로 접고, 느려지는 두 자락에 다 "수복강령, 부귀다남" 등 좋은 글귀를

한문으로 금박아 놓고 그 가장자리에 완전 좋은 무늬를 두른다. 자락이 맞닿는 곳엔 은으로 나비 석광을 금직하게 만들어 칠보로 오색을 영롱하게 아로새겨 달아 놓으면 요새 말로 근사하다. 석광이 달린 뒷면에 부드러운 비단 총맹기를 달아 머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어려서 머리가 작으니까 호사 맹기로 치레하는 거다. 설날이나 경사스러운 날만 드리우고 동생이나 조카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호사 맹기다.

보통 집에서 그냥 비단 맹기에 잘 익은 꿩대추 같이 생긴 돌을 다듬어 민낯 석광을 달아 준다. 이 돌은 한약에 쓰이는 '석옹황'이라는 약재인데 뱀이 돌 뱉새만 말아도 기운을 못쓴단다. 조상들의 지혜다.

우리는 내 위로 작은 고모님 한 분, 내 아래로 여동생이 셋, 분가 하실 때까지 함께 살았던 사촌 여동생이 다섯, 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아침은 항상 초월이다. 그래도 어머니님과 숙모님께서서는 딸들의 머리를 꼭꼭 빗아 맹기를 매 주시면 머리 꼬리가 뻗친다.

할아버지께서 "칠뿔 짜리 돼지 꼬리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팔순이 다 된 내게 눈에 선하다.

참으로 옛날 이야기이다.

社說

광주·무안 공항 통합 시도 긴밀한 협력을

광주 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통합 문제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민선 7기 광주 시와 전남도가 풀어나갈 첫 번째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를 계기로 탄력을 받으면서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초 윤창현 시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 공항 통합의 필요성을 밝힌 이후 시가 발주한 '광주·무안 공항 효율적 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광주시와 전남도,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공항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 공항의 통합이 실질한 과제로 부각된 것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결정에 따라 제주 노선에 의존해 운영해 오던 광주 공항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무안 공항은 양 공항 통합 논의에 발목이 잡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일본·중국·동남아 등을 찾는 시도민들이 인천 국제공항이나 김해 공항을 이용하면서 비행시간보다 더 긴 국내 이동 시간을 허비하는 등 불편도 커지고 있다. 광주의 민간 공항을 먼저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군 공항 이전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양 공항이 통합되면 호남고속철도 경유에 따라 이용 권역이 전북·충남 일부까지 확대되고, 국제선 및 저가 항공사 유치 등을 통해 서남권 거점 공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년간 끊겼던 정부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전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긴밀한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업소의 카드 중복 결제 고의인가 실수인가

신용카드 사용 시 중복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카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들이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액수가 중복 결제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도 고객의 신용카드를 중복 결제했다가 이를 발견한 당사자가 항의하면 번거로운 카드 결제 취소 절차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일을 겪은 업소 이용자들은 고객들이 소액 결제는 거래 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중복 결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손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체 수입으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업주들은 미리 요금을 받은 뒤 같은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이 또 결제하면 이를 알려주지 않고, 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다수가 일정시간 음식을 먹는 식당 등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카운터에 있는 정산용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각 테이블의 계산 여부 등이 다 표시돼 있다는 점에서 실수보다는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손님이 알고 항의하면 그때 가서 기기 조작 미수 등 실수였다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호텔 예약이나 택시를 이용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중복 결제에 항의하면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해 돈을 받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결국 중복 결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확충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객들이 각별히 주의할 수밖에 없다. 주기적으로 계좌 내역서와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63년 우리나라에 라면이 첫선을 보였으니 벌써 55년이 됐다. 세계 라면협회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평균 36억 개의 라면을 소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1인당 74.1개쯤,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라면에 관한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어릴 적 처음 맛본 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70년대 중반이였으니, 라면은 귀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자주 맛볼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

라면의 추억

김훈은 에세이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라면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 박혀 있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했다.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히는데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1리터 정도 되는 반합에 라면을 3~4개까지 넣고 끓였으니 국물이 거의 없는 짭재 수준인데도 짭 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봉지째 끓여 먹었던 '뽕굴이' 맛도 잊을 수 없다. 겨울철 막사에서 불침번을 설 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봉지를 뜯고 물을 부어 스팀 난로에 올려놓는 수밖에 없었다. 온도가 낮아 15분 이상은 올려놓아야 하는데 불어터

진 컵라면 값지만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은 없었다. 일요일 아침, 단체로 구내식당에서 먹는 라면은 일종의 떡라면이었다. 한꺼번에 400~500명 분량의 라면을 불로 끓이는 것은 불가능해 스팀으로 찌는데 졸여서 서서 배식을 받을 때는 불어 터진 면발이 엉겨 붙어 떡처럼 변했지만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다. 라면은, 특히 힘든 생활의 연속인 군대에서 먹는 라면은, 맛도 맛이지만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

김훈은 에세이집 '라면을 끓이며'에서 "라면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 박혀 있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했다.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히는데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1리터 정도 되는 반합에 라면을 3~4개까지 넣고 끓였으니 국물이 거의 없는 짭재 수준인데도 짭 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봉지째 끓여 먹었던 '뽕굴이' 맛도 잊을 수 없다. 겨울철 막사에서 불침번을 설 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봉지를 뜯고 물을 부어 스팀 난로에 올려놓는 수밖에 없었다. 온도가 낮아 15분 이상은 올려놓아야 하는데 불어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6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국특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인 부 220-0693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인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